



“프리미엄 원두커피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마셔요”
L1



Life

삼성
송산 프로젝트
재조명
L4



SK하이닉스, ‘HBM4 16단’ 첫 선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총출동

CES 2026

AI 최적화 ‘차세대 메모리’ 공개
업계 최고속도 ‘HBM4 12단’ 후속
AI 특화·범용 제품 라인업 전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4 16단 48GB’를 6일(현지시간) 열리는 ‘CES 2026’에서 최초 공개한다.

SK하이닉스는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6’ 베네시안 엑스포에 고객용 전시관을 열고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SK그룹 공동 전시관과 고객용 전시관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고객용 전시관에 집중해 주요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CES2026 SK하이닉스 전시 조감도.

/SK하이닉스

주제로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HBM4 16단 48GB’은 업계 최고 속도인 11.7Gbps를 구현한 HBM4 12단 36GB의 후속 모델로, 고객 일정에 맞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체 HBM 시장을 주도할 HBM3E 12단 36GB 제품도 전시한다. 특히 이 제품이 탑재된 글로벌 고객사의 최신 AI 서버용 GPU 모듈을 함께 전시해 AI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HBM 외에도 AI 서버 특화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SOCAMM2도 전시해 폭증하는 AI 서버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도 전시해 시장 전반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크게 개선한 ‘LPDDR6’을 공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이노텍, AIDV 시대 모빌리티 솔루션 공개

자율주행 융복합 센싱 솔루션 선봬
고객 맞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도약

LG이노텍이 인공지능 정의 차량(AIDV) 시대를 맞아, AD(자율주행), ADA 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품을 선보인다. 회사는 전장부품 기업을 넘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부스 내부에 들어서면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컨셉가 목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AD·ADAS 관련 제품 16종이 목업에 탑재됐다.

자율주행 목업에서는 차량 내·외부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융·복합 센싱 솔루션을 히어로 제품으로 앞세웠다. 다양한 부가기능을 장착한 차량 카메라 모



LG이노텍 CES 2026 프리부스. /LG이노텍

듈에 라이더(LiDAR), 레이더(Radar)를 결합했다.

눈이나 서리를 빠르게 녹이는 히팅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렌즈에 낀 물기와 이물질을 단 1초 만에 털어내는 액티브 클리닝 카메라 모듈은 기존 대비 사이즈가 한층 작아졌지만,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능은 한층 업그레이드돼 눈길을 끈다.

자율주행 목업은 직접 시승해 볼 수도 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에 설치된 LED 스크린으로 LG이노텍의 센싱 솔루션이 선사하는 차별화된 자율주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라이즈’와 일상 AI 경험 알린다

CES서 ‘더 퍼스트룩’ 행사 참여
신제품·서비스 직접 체험하고 공유

삼성전자가 6인조 K팝 아티스트 ‘라이즈(RIIZE)’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AI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혁신 경험을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였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라이즈는 삼성전자가 개최하는 ‘더 퍼스트룩’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삼성전자 전시장 곳곳에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경험을 전 세계 고객들과 공유했다. 라이즈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멤버서더로서 ▲라이즈의 첫 정규 앨범 ‘오디세이’ 뮤직비디오 ▲‘갤럭시 워치 8’ 광고 영상 ▲‘스마트싱스’ 소셜 콘텐츠 ▲‘삼성 헬스’ 글로벌 음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삼성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메시지를 전파해왔다.

앞서 라이즈 멤버 전원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진행된 삼성전자의 ‘더 퍼스트룩 프레스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삼성전자의 비전과 신제품을 직접 경험했다. 또 삼성전자 전시관에 전시된 다양한 AI 제품 가운데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소개하는 숏폼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다. /차현정 기자

“행동하는 AI 시대, 로봇으로 미래 기준 제시”

류재철 LG전자 CEO, AI 비전 공개
AI 홈 비전 ‘제로 레이버 홈’ 현실화

“LG전자는 ▲탁월한 제품 ▲공감기능 ▲연결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AI’ 시대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

류재철 LG전자 CEO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대표 연사로 등단해 이같이 말했다.

류 CEO는 AI홈을 언급하며 “훌륭한 기기”가 사용자에 맞춰 적응하며 사용자



류재철 LG전자 CEO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에이전트 가전’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이들이 하나의 잘 조율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AI홈

로 동작하면 AI홈 비전인 ‘제로 레이버 홈’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공감기능이 하나로 조율한 기기, 솔루션, 공간을 통해 실질적 고객가치를 전달하는 공식은 AI 홈로봇 ‘LG 클로이D’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LG 클로이D를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판단해 직접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가정에 특화된 에이전트’로 정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미래 가정 생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위아, 미래 로봇 플랫폼 ‘H-모션’ 선봬

CES 첫 참가… 제조·물류 로봇 선봬

현대위아는 CES 2026에서 제조·물류 현장에서 쓰이는 ‘모빌리티 로봇’을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 제조 현장에서 사용 중인 물류로봇과 주차

로봇, 협동로봇 등 현대위아의 로봇 플랫폼 ‘H-모션’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물류로봇(AMR)은 최대 1.5t에 달하는 무게를 실어 나를 수 있다. 라이더를 이용한 자율주행과 QR코드 인식을 통한 가이드 주행 모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물건을 올리는 차상장치(탑 모듈)도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물품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 물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턴테이블’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협동로봇은 기존 로봇과 다르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현대위아는 최대 15kg을 들 수 있는 협동로봇을 비치해 물건을 스스로 인지하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밥캣, AI 음성제어로 건설장비 조작

업계최초 음성제어 기술 공개

두산밥캣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미디어 데이에서 음성명령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소형 건설장비 기술을 공개했다.

스택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이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건설현장 솔루션을 발표했다. 해당 기술들은 장비 조작을 간소화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

하는 한편, 복잡한 현장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장비 업계 최초로 AI 기반 음성 제어 기술인 ‘밥캣 잡 사이트 컴패니언’을 선보였다. 작업자는 음성 명령만으로 장비 설정과 엔진 속도 조절, 조명·라디오 제어 등 50여 가지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작업 내용과 사용 중인 부차 장비(어태치먼트)에 따라 최적의 세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피겨 차준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 메달권 진입 도전 /사진 뉴시스
▲롯데, 코치진 구성 완료 …강석천 수석·이현곤 수비코치 합류

▲한일 탁구 간판 격돌 …신유빈, 올해 첫 WTT 대회서 하리모토와 대결
▲‘정우영 교체 출전’ 유니온 베를린, 아우에와 친선전서 승리

▲반등 노리는 SSG 김광현, 후배들과 미니캠프서 구슬땀
▲최형우·박찬호 떠난 KIA…책임감 막중한 김도영·나성범